

11개 분과 100여명 23개 의제 집중 논의...협업 모색

광주시 민관협치 통합워크숍

갈등 예방·정책 참여 확대 등 소통플랫폼
姜시장 “목표는 시민 행복 협치문화 확산”

광주시가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민관협치 통합 워크숍을 열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1층 열린청사에서 ‘제3기 민관협치협의회 통합 워크숍-놀(라운) 제(안은) ing(진행중)’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2일 제3기 민관협치협의회 출범 이후 첫 행사로, 11개 분과위원회가 발굴한 총 23건의 안건을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소통창구다. 지역 현안 의제를 발굴하고 속의를 통해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과 정영일 (새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11개 분과위원회 위원, 안평환·임미란 시의원,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주시 살·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민관협치협의회 통합워크숍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협의회는 시청 1층 시민홀에 분과별 안건 홍보배너를 설치해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정책 제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듣는 등 실질적인 협치 참여를 확대했다.

워크숍에서는 분과별 안건을 5분씩 발표한 뒤 라운드테이블 순회를 통해 안전의 배경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분과 간 협업 방안도 함께 모색하며 민·관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노동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등 2건) ▲문화예술 (광주 예술촌이 정답이다 등 2건) ▲민주인권 (인권오피스맨? 뭘 하는 사람일까?)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인프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

성 관련 3건) ▲안전도시교통 (대자보도시 보행 취약지역 발굴 및 보행환경 개선 제안 등 2건) ▲성평등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등 3건) ▲이주민 (이주노동자 실업위기 대응 지원과 산업안전 예방교육 등 2건) ▲자치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법제화와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와 마을의 활성화 전략 마련 등 3건) ▲청년 (경제 신지능 청년 지원 등 3건) ▲청소년 (광주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방 지원체계) ▲환경 (화학약품)으로부터 안전한 광주만들기 등 총 2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한 민간 15명, 공무원 5명에 대한 시장 표창도 수여됐다. 수상자는 각 분과의 추천을 통해 선정돼 의미를 더했다.

민관협치협의회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은 “민관협치의 목표는 시민 행복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소통이 핵심”이라며 “제3기 민관협치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협치문화를 더욱 넓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동의장인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민관협치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며 “협의회가 명실상부한 민간 소통 창구로 실질적인 협력 구실제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회 기자

RE100 첨단국가산단 동부권 유치 박차

포럼·결의대회...필요성·추진 전략 공유

생산유발 3조5천억·고용창출 1만4천명

전남도는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재생에너지100(RE100) 미래첨단 국가산단 유치 포럼 및 결의대회’를 열고 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행사는 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순천시·광양시가 공동 주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신정훈·주철현·조계원 국회의원, 정인화 광양시장, 전문가, 기업·연구기관, 상공회의소,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 동부권은 해상풍력·육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이 탄탄하며 여수·고흥에서 추진 중인 13GW 해상풍력이 본격화되면 RE100 전력 기반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광양제철(POSCO)이 위치한 광양만권은 고로슬래그·분진·화학 부산물 등을 첨단소재로 재활용하는 순환경 산업생태계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LG화학 등 앵커기업과 전남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CL) 등이 밀집해 국가산단 조성 여건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용역 검토에서는 117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혀 약 12만평 규모의 수요가 확인됐다. 국가산단 조성 시 생산유발 3조5천억 원, 부가가치 1조2천억 원, 고용창출 1만4천명 등 경제 효과 역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대회 이후 진행된 포럼에서는 안형순 동신대 교수가 기초연설을 하고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기본구상과 조성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연구·학계 전문가 6명이 참여한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RE100 기반 신산업 모델 창출, 국가 성장축 확보, 산·학·연·관 협력 강화, 산업혁신 중심지 도약 등을 다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부산물 순환 구조를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소재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순천·광양을 중심으로 RE100 기반 미래첨단 국가산단을 조성해 새로운 산업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이번 국가산단 유치 포럼 및 결의대회는 전남 동부권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전남 전역이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RE100 기반 미래첨단 국가산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 기자

도, 육아용품 지원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

전남도는 25일 “다자녀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전체 출생아 대비 둘째아 이상출생아수비율은 2020년 51.13%에서 2024년 45.17%로 6% 줄었다. 특히 20·30대 다자녀비선호 성향이 뚜렷해 출생률 반등을 위해서는 다자녀 출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마무리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환급 조기 종료

예산 소진...18만8천813명 14억 수혜

광주시는 25일 “지난 10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15억1천200만원)이 소진됨에 따라 이날 사용분까지 선착순 환급한 뒤 사업을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했다. 지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누적 1만원 이상 결제하면 사용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광주시는 1인당 주별 최대 2만원까지 환급을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기준 총 18만8천813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환급액은 14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예산 잔액과 집행 추이를 고려할 때 25일 중 모든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기간에 시민들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방문이 늘며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났다”며 “사업은 조기 종료되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꾸준히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수회 기자

▶1면 ‘COP33’서 계속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내년 5월 열릴 예정인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한국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여수를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후보지로 선정할 바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COP의 공식 의제 설정을 위한 사전 행사 격으로 전남도는 C

OP33 유치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 등 시민사회와 협력해 정부에 COP33 국내 유치와 남해안 남중권 개최도시 선지정을 위한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점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감정가 이하]

○ 감정가6억2,000 == 급매4억1,000
임동5거리 대로변8층135평(바로입주가능)
[시세반값 급매물]



○ 백운광장 대로변코너
상업지289평(분할가능)평당1,600
○ 법원앞 대로변코너
전철역입구에정지 대지283평 평당1,200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